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지도자 양성방안을 위한 전제 조건

박현식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우리사회의 문제는 급속도로 진행되어온 현대화,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비단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사회의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권경주 교수님의 논문에서 지역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획일화된 문화와 입시위주의 청소년문제에서 지방(농촌지역)청소년 상황의 인식 속에 대안 제시에 큰 의미를 둔다.

청소년의 문제는 정보화에 따른 비인간화와 가치 혼란으로 인해 정체성의 문제는 미래사회의 전망을 불투명, 불안하게 예견케 한다.

우리나라의 획일화된 문화 환경속에 지역적 차이로 인해 청소년 스스로 사회와 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이질감, 소외를 갖게 해 주는 현상을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함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역적인 상황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부재와 입시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청소년 스스로의 의사결정 구조, 의사전달로 인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질까? 라는 문제를 제기해 봐야 한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의 대책으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논문에서 지적했듯이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결정에 따른 집행기관으로의 역할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결의 방안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리더십 배양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었는데 현재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속에 청소년문제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이러함의 원인은 지방정부가 당면한 한계로 재정 분권화로 인한 예산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두 번째,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기관의 중복성과 프로그램 집행기관 또한 중복되고 있음으로 자원 낭비와 효율성, 효과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갖

게 한다. 이러한 한계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나타난다.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결벨트모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학교임으로 교육적 입장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청소년의 문제를 비행, 탈선의 사회문제로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정책결정, 집행기관의 혼란은 더욱 심각한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내의 다양한 자원의 참여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의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의 측면이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지역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고령화사회문제중하나인 농촌지역의 현상이다. 그중 특이한 현상중 하나가 조손가정이 도심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안정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문화 환경의 부족이다. 이는 언론 및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문화와 지역 내 보유하고 있는 문화의 차이로 인해 막연한 동경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내에 청소년들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만한 충분한 공간, 시간의 부족이다.

둘째, 공급자원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청소년 문제의 접근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는 교

육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지역기관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는 접근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와 지역복지관, NGO등 자원네트워크를 통한 인프라구축의 요구된다. 재정분권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산부족은 사회복지축소, 위기현상으로 복지다원주의를 요구로 공급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생산적형태의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도 복지적 측면으로의 접근을 위해 지역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공급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자율성의 측면이다. 청소년 문제를 위한 실행기관의 자율성과 청소년 스스로 참여,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실행기관의 지원과 집행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이다. 자원의 공급기관으로 인해 집행기관은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의 문제는 어려움에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은 요청 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청소년 지도자양성을 권 경주 교수님이 밝히고 있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지방의 상황과 자원의 공급, 참여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